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40)

폐하불가역복(陛下不可易服)

폐하 옷을 바꾸어 입으셔서는 안 됩니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어떤 큰 사건이 별안간에 일어나면 사람들 은 놀란다. 그리고 허둥댄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겪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사실 커다란 사건이 어떻게 별안간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큰일일수록 오래 전부터 조짐은 있게 마련이다. 이것이 기미(機微)다. 이 기미를 잘 파악할 수 있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선각자이거나 지도자이지만 이 기미를 살피지 못하면 후에 가서 허둥대기 마련이다. 그러하니 보통 사람은 기미를 잘 아는 지도자를 만나면 편하게 살 수 있다.

북송 흠종 정강(靖康) 2년(1127년)에 북송(北宋)이 금(金)에게 망하였다. 당시 송의 백성들은 얼마나 허둥대며 놀랐을까? 사실 송왕조의 망조(亡兆)는 그 12년 전인 1115년에 우리의 학경도와 흑룡강을 중심으로 자기부족들이 모여서 살던 생여진(生女眞)의 야고달(阿古達)이 금(金)을 건국한데서 시작하였다 고 볼 수도 있다. 금은 건국하자 바로 요(遼)를 무인지경(無人之境)처럼 공략하였고 도망 다니던 요(遼)의 천조제(天祚帝)는 금(金)에 잡혔다. 그리고 2년 뒤에 금군(金軍)에게 북송의 황제(皇帝)인 흠종(欽宗)이 항복하였으니 말이다.

동북아의 이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슬픔과 애통함만 감돌았다. 이미 금군(金軍)이 북송의 도읍인 변경(汴京)으로 들어와서 청성(青城)에 자리 잡았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는 북송은 그저 금(金)의 두 원수(元帥)인 완안종한(完顏宗翰)과 완안종망(完顏宗望)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별씨 흠종은 금(金)이 요구하는 대로 하북과 하동지역을 금(金)에 내 주기로 허락하였던 처지였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 금(金)은 흠종에게 금(金)의 두 원수가 머무르는 청성으로 오라고 하였다. 흠종은 북송의 대신들과 몇몇 아들들과 함께 청성으로 갔다. 갈 때만 해도 금군(金軍)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었으므로 5일 정도면 다시 활동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금에서 요구하는 금·은(金·銀)의 수량을 못 채웠다는 것이 이유였다. 송에서는 금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관원을 다 동원하여 백성들의 집을 살살이 다 뒤져서 금·은을 긁어모아 바쳤다. 하다 못하여 복전원(福利院)에 살던 빈민(貧民)도 금 2량과 은 7량을 납부해야 할 정도였고, 활실의 외척들이 살던 척리(戚里)와 종실, 내시(內侍), 승려나 도사(道士), 재주로 먹고 사는 기술자(伎術者), 노래하고 배우노릇하며 먹고 살던 창우(倡優)의 집도 모조리 다 과해쳐서 금·은을 거두어 송에는 금·은은 씨가 다 말랐지만 금(金)이 요구하는 수량을

못 채웠던 것이다.

급기야 2월 6일에 금(金)의 황제는 조서를 내려서 송의 흠종(欽宗)과 상황(上皇)인 휘종(徽宗)을 폐위시켜서 서인(庶人)으로 삼았다. 이 명령에 따라서 그동안 금의 사자(使者)로 송과 교섭하는 일을 맡아왔던 소경(蕭瓚)이 흠종에게 어복(御服)을 벗고 서인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재촉하였다.

이때 흠종을 따라 갔던 많은 송의 대신 가운데 이악수(李若水)만이 흠종에 불합고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옷을 바꾸어 입으셔서는 안 됩니다!” 용감한 행동이었다. 금인(金人)들이 그를 그대로 둘 리가 없었으니 불잡아 떼어놓았지만 그는 온갖 육을 다 퍼붓다가 바로 심하게 얻어맞고 숨이 멎은 듯 깨무라쳤다가 한참만에야 깨어났다. 이렇게 큰 지각변동의 시기에 그의 행동은 개인적으로 목숨을 건 용감한 행동이었지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날인 7일에 상황(上皇)인 휘종(徽宗)도 소가 끄는 초라한 마차를 타고 황실의 비빈, 황자, 공주를 모두 데리고 금(金)의 두 원수가 있는 청성으로 가야 했다. 물론 휘종도 서민의 옷으로 바꾸어 입은 채로 끌려 간 것이다. 북송이 망하는 모습이다.

사실 송태조 조광윤(趙匡胤) 때만 해도 북송은 거란과 대치하면서 큰 소리를 쳤었다. 조광윤은 ‘거란의 정예부대는 10만 명이고 정예의 병사 한 명은 비단 20필이면 살 수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돈으로 거란의 정예병사 전부를 사버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송의 경제력은 대단하였다. 이러한 경제력을 가진 송이니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저 태평성대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 금(金)이 건국하기 전에 상무(尚武)정신으로 생존을 영위하던 흑룡 강변의 작은 부족 여진(女眞)을 장차 금왕조를 세울 역량 있는 종족으로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래서 오로지 내부에서 권리 다툼에 여념이 없는 당쟁(黨爭)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니 송(宋)이 맹활 조짐은 이미 금(金)이 건국한 1115년에 이전에도 이미 있었다 할 것이다. 금이 건국했을 때는 이미 짹이 터서 출기까지 생겨났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좀더 살피고 보면 대 이 기미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송이 맹하기 30여 년 전인 철종 만년(晚寧)이었다. 당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정적을 공격하려고, ‘원우(元祐)연간에 왕안석의 변법(變法)을 비판하고 구제(舊制)로 돌려놓은 사람들은 바로 위대한 황제 신종(神宗)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고, 이는 바로 신종의 아들인 철종에게 불효(不孝)를 저지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황제에게 불효를 저지르게 하였으니 이러

한 사람들을 모두 붕당(朋黨)이라고 몰아서 원우당적(元祐黨籍)이라는 명부를 작성하여 대내쫓았다. 이들은 왕안석의 변법을 신종이 승인한 신법으로 여기면서, 이를 ‘이어 받는다.’는 뜻의 소술(紹述)을 내세워 국시(國是)로 하고 연호도 소성(紹聖)으로 고쳤다.

그 후로 실제로 민생이나 국가의 재정에 문제를 일으킨 신법(新法)이라도 신종시절에 만들어 진 것은 한글자도 고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제거하고 싶은 정적(政敵)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시(詩) 구절(句節)이나 편지에서 한두 글자를 찾아내서 이 불효(不孝)라는 모자를 씌워서 내쫓았다. 이제 소술이란 국시 아래에서 국가의 활로(活路)를 찾는 일은 할 수 없었으니 나라는 기울어졌고, 드디어 흠종에게 와서 망국의 치욕(恥辱)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가치로 전체를 덮어씌우는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다. 요즈음으로 말하면 이념이 정치를 오죄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이 만연되면 비판이 불가능하고 보이지 않게 국가와 사회는 병들어 간다. 그 좋은 예가 북송에서 소술(紹述)을 국시로 정하고 나서 30년 뒤에 송의 두 황제가 금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고, 송의 비빈들은 금에 끌려가서 찬 물에 빨래를 하게 했던 일이다. 이 비극의 조짐은 소술을 국시로 정할 때 벌써 알아차릴 수 있었겠지 만 당시 송의 지도자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근세에도 북송시대의 소술처럼 절대가치를 내세우면서 상대에게 모자 씌워 정적을 배척한 일이 빈번하였다. 모택동은 봉건이란 모자를 씌웠고, 김일성이 수정주의(修正主義)란 모자를 씌웠으며, 자유당시절에 빨갱이라는 모자를 씌웠었는데 요사이에는 수구꼴통이라는 모자를 씌우면서 정적을 제거하려 한다. 이 모자 씌우기는 정적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권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자주 이용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결과가 후손들이 엄청난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을 아예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도 이 모자 씌우기가 만연한다. 정적을 쓰리트리려고 온갖 모자를 다 만들여 아단법석이다. 이들도 북송시대의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이 만들어 상대에게 씌우는 모자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져다줄지 생각해 보지 않고 나라가 내일 망해도 오늘에는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투지만 있는 것 같다.

이 망국의 모자 씌우는 뜻은 고리를 끊고 이성(理性)적 사고(思考)로 자유로운 언론과 토론이 가능한 사회가 될 방법은 없을까? 모자 씌우는 정쟁(政爭) 70년 역사를 생각하니 북송 멸망의 기록을 읽는 마음이 답답하다.

추밀공파 정간공 추향제 봉행



문화찬성사에 이르러 영가군에 봉해졌고 조선 태조 2년 겸교문화시중으로 개국원종공신이 됐다. 실록 즐기에 “희(禧)는 웃사람을 섭기고 직사(職事)를 받드는 데 있어 정성스럽고 진실하여 속이지 않았으며, 부처를 대단히 좋아하였다. 그리고 처음 벼슬할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편출(貶出)과 탄핵(彈劾)을 당하지 않았다. 아들이 다섯이니, 권화(權和)·권충(權忠)·권근(權近)·권우(權遇)이고, 하나는 중이 되었는데, 이름은 이사(二巳)이다.”(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9일 신사)

이날 추향제 봉행 후에는 권병돈 회장 주관 하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상을례, 회장인사, 2021년 사업경과보고와 감사보고, 재무보고(결산보고),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성화보 원본 복제의 건, 신도비문(국재공, 정간공) 족자 제작의 건, 정간공 묘역 성역화 장기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재안파종회장친목회 열세 번째 모임 가져



재안파종회장친목회(在安派宗親會長親睦會: 회장 권계동) 열세 번째 회의가 11월 26일 저녁 6시 안동시 솔밭길23 '풀·술'식당에서 개최하였다. 격월제로 개최하던 회의가 코로나19로 지난 7월 9일 회의를 개최한 이래 4개월 만에 재개하게 되었다.

이날 참석한 사람은 권계동 재안파종회장친목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권인탑 파종회장 협의회 고문, 권기호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영택 정조공파종회장, 권중근 시중공파종회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기원 파종회장친목회 총무, 권영건 안동권씨종보 보도부장 등 9명이며 새로 입회한 회원은 권주연 부호장공파종회장, 권세목 복야공파종회장 등 신임파종회장 2명도 참석했다.

권오수 동정공파종회장, 권기수 별장공파종회장, 권순협 진 별장공파종회장 등 3명은 개인 볼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권기원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계동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19년 8월 15일 시내 청운식당에서 안동권씨 15개 파(派) 가운데 안동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5개 파(派) 회장이 모인 가운데 밭죽식을 가진 이후 열두 차례 걸쳐서 모임을 가졌다”며 그 동안 친목회가 걸어온 내역을 소상히 소개했다.

이어 권회장은 “오늘 두 파(派) 회장님이 새로 입회를 하여서 반갑기 그지 않다”며 열렬히 환영하는 뜻에서 박수를 보내자”고 해서 모두들 힘차게 박수를 친 후 건배도 하였다. 이 친목회는 숭조정신을 함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문종의 단합을 목적으로 모인다.

이 회는 앞으로 격월제로 흘수 달 넷째 주 금요일 저녁에 만난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넷째 주 금요일 만나기로 했으나 음력 설 연휴 관계로 1주일 앞당긴 1월 22일 금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권순협 진 별장공파종회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두부 한 박스씩 선물로 전달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2020년 정기총회 이후 미납된 임원회비는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종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